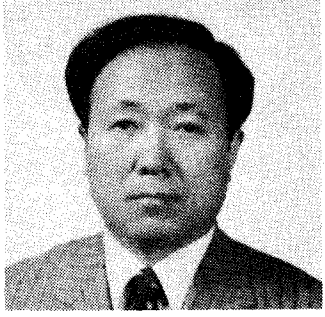


변증법적 중국사회주의의 100년 대장정

기획논단

조인회를 통해 본 중국사회주의 개혁



신용철
(문리대교수·사학)

1. 세기의 대장정

지난 20일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약칭: 전인대)가 2천 6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러한 규모에 못지 않게 회의는 공용어인 중국어 외에도 조선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불어 등 7개 언어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어 옛부터 한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지칭하는 천하(天下)라던 그들의 거대한 실재를 실감케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외형적 규모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나 목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중국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비롯한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표현처럼 천하가 대란하기도 하고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변화들은 중국에게 새롭고 시급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 외적변화와 이 변화된 도전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볼까한다.

제2차 대전후 반세기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미, 소양대체제의 세계균형의 와해로부터 온 동서체제의 변화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진전되어 그 짧은 5년간의 세계를 몇세기 만큼의 변화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동유럽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동서독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 10월의 독일통일은 곧 유럽에 있어서 긴장의 완화이며 평화의 진전이었으며 새 유럽 구도의 일대 전진적 격변이었다. 그러나 더욱 엄청난 변화는 바로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일어났다. 공산당의 해체와 소련방의 붕괴로서 이제 양대 대결구도가 끝장난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있는 이래 항상 북방의 강적을 가졌던 중국으로서 역사상 최대의 속적인 소련의 붕괴는 크게 환영할 만한 고무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이제

그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예측불허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소련의 사회주의 종주국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의 퇴조한 세계의 조류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소련이나 동구처럼 포기하려는 의 문제도 그의 대상이었지만 중국에서 아직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를 보다 발전시키려는 미래의 목표와 설계로서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새롭지만 좀 불투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청사진이 상당히 불투명한 점은 있으나 세계를 통해 거세게 밀려드는 세계적 조류에 중국이 자기혁신을 통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중요한 시급성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는 곧 퇴조하는 사회주의를 얼마나 변증법적으로 중국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가 바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1917년 서유럽(독일)의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 그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 즉 변증법적 발전에 신뢰한 소련의 역사적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흥미있는 세계사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시도가 곧 지금 중국이 1970년대 중반 등소평 집권 이래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개혁' 운동이다.

이 개혁은 처음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로서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고 역사의 변화속에서 이제 사회주의의 종주국이 된 스스로의 위치에서 '중국적 사회주의'의 목표로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혁의 수행을 위해서는 중국은 100년이란 시간을 잡고 있다. 이는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소위 '5개년', '7개년'의 여러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비해 실로 느긋하고 장구한 중국적 시간표의 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표의 차질 없는 성취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변화와 함께 1840년 이래 엄청난 시련과 혁명속에서 전개된 중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 경험을 이끌어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적인 전통을 둘러싼 보수와 개혁파의 갈등, 개방과 폐쇄한 지그재그식 대서방관계, 개혁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그 숭한 논쟁들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바로 과거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

히 이 점은 중국에 있어서 세계의 어느지역보다도 훨씬 상고적이고 전통적이라는 성격때문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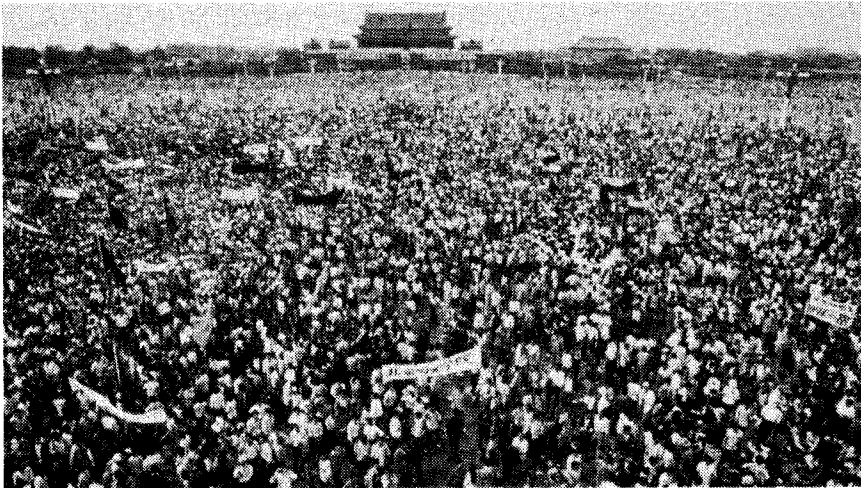
2. 지난 세기의 개혁과 전통

이러한 근대화 또는 현대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날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 또 근대

(洋務運動)을 전개하였으나 1845년 청일전쟁으로 그의 실패가 확인되자 1898년 무술변법으로 입헌군주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실패한 중국인들은 혁명만이 국가부흥의 첩경임을 자각하여 손문들이 1911년 신해혁명으로 진시황이래의 왕조를 붕괴시키고 서구식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이 한세기동안 중국인들은 군함·대포 등 무기의 제조는 물론, 정부, 등 서구식 제도의 수습을 서둘렀지만 그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회의함으로써 속도는 느렸고 또 보수진보파의 저항이 심하였다. 이점에서 서구식의 개혁과 개방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고 좌절과 시련은 계속되었던 서구식의 좌·우의 대립보다는 개혁과 개방을 둘러싼 지



어 > 중국의 1세기 개혁은 세계사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사진은 천안문광장 시위학생들

근대화 문호 개방된 보수·혁신 대립 통한 발전 개혁세력 주도한 전인대회 통해 사회주의 실천 모색

혁명에 정서적인 혼란, 경제적 폐쇄, 사회적인 모순으로 서구나 일본등의 외세침입과 함께 대 혼란에 빠지자 1921년 중국공산당이 생겨나고 그후 1949년까지 중일 전쟁시기, 국·공합작대결로서 정치적혼란은 국도에 달하였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지이겠으나 근세이래 '근대화'란 일반적으로 공업화와 서구화란 성격은 다분히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는 정의는 그 자체가 이미 논리적 모순을 갖지만 근세이후 서구의 발전모델이 대부분의 세계지역에서 인류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표준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약 절에 있어서 세계의 어느 곳보다 인구가 많고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강하여 자존심이 큰 중국인들에게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 들여 질 수는 없었다.

1840년 먼 서방의 작은 나라 영국의 포함에의해 문호를 개방했고 중국의 서구화 내지 근대화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자존심 때문 에 항상 그의 폭이나 속도에 있어서 지그재그식 과정을 되풀이해왔다.

이점은 1853년 미국의 위협으로 개방한 일본의 그후 눈부신 발전과 비교하면 좋은 대조가 된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은 그들의 무력에서의 역사를 만회하고 군함과 무기의 제조등의 양무운동

지·반대파의 보수·혁신적이라는 정치적 대결과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중세서용(中體西用)이나 전반서화(全盤西化), 충분서화(充分西化) 등의 이론이 계속되었고 전통의 정리와 혁신은 물론 서구

에 대해 개방과 폐쇄를 둘러싼 논쟁 역시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49년까지 대결한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유럽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아니면 1917년 관계와 차이는 있어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정신적, 물질적인 문화를 수용하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래의 중국 사회와 지향할 방향을 둘러싸고 1919년 5.4운동 당시 중국지식인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수용 문제에 대해 심한 갈등을 보였다.

처음 민족주의 운동을 주창하고 비판을 주도했던 북경대학 지식인들은 호적등의 자유민주주의자와 이념, 진보파의 마르크스주의자 간의 논쟁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중국공산당이 1949년 중국을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함으로써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의 장단점보다는 그 당시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현실이 그러한 역사과정의 배경이 되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지루하고 폐쇄한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보다는 혼란의 국면이 우선 과제였음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이제 한 세기의 과제였던 국가발전으로서의 개혁은 민족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혼란을 극복한 새로운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에게 그의 역사적 임무

기원적 221년 진시황의 전국통일 만무이나 엄청난 변화의 역사적 새 장을 창출하였다.

새로운 국가의 지향할 목표와 방향설정, 그의 내용을 위해 사회주의적 이념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서 그들은 사회주의와 중국적 철학과 역사를 찾아내고, 이로서 생하는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의 사관과 중국현실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한편 그들의 세기적 과제인 개혁의 추진을 위해 민족적 에너지의 집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래 낙후되었던 경제가 전란중 황폐화되어 전반적인 경제의 회복이나 발전이 혁명이나 전정처럼 쉽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의 대외관계는 중일전쟁등의 국민당 정부와 미국 관계때문에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폐쇄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중국정부는 수천년 역사의 왕조체제에 오는 '중국적인 질약운동과 폐쇄성'의 사회주의적 개혁으로 그의 방향을 특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낙후성이나 대외적인 비교에서 초조해진 모택동은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는등 무모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실패와 그후 1960년대 말 발생한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산업이나 특히 공업분야에 있어서 발전은 커다란 손실과 침체를 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이 지경화된 명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농업발전의 기반은 상당한 정도 조성되어 식량의 자급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서 교육의 변화는 각급 학교에서 크게 두드러져 이념과 평등이 크게 강조된 반해 전문서의 개발이 극히 부진하였음은 그들 스스로가 1980년대에 공적으로 인정 한 바이다.

모택동과 주은래 사후, 등소평의 집권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은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근세이래 중국이 항상 되풀이해 서 겪고 있는 대외적인 폐쇄로부터 개방의 시기에 도달했고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즉 집권 후 4개 현대화의 정책적 추진이나 오늘날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국적 사회주의의 건설이 바로 이러한 개혁운동이다.

그러나 보수와 개혁 개방파간의 갈등은 1989년 2월4일 천안문 사태 이후 다시 보수측으로 기울 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등소평의 개혁에 대한 강조와 보수파에 대한 공격으로 역사의 방향을 잡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번 제7차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중국의 앞으로의 개혁은 100년간 지속하겠다는 그들의 공식 입장은 실로 중국다운 미래의 설계 구도이다. 이러한 맘모스적 계획의 구상과 느긋한 장기적 시간의 설정은 중국의 발전이나 변화가 다른 세계의 지역에 비해 매우 느리고 또 극히 신중한 중국인의 전통적 자세와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과연 그들이 설정한 개혁의 100년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인들로서는 그들의 사회주의나 근대화를 위한 노력 즉, 개혁을 변증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개혁의 성공이나 실패는 지난 한 세기동안 중국이 되풀이해온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내면적 지혜와 에너지에 얼마나 집중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중국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성숙이다. 역사적으로 홍노와 돌진, 거만과 여진, 몽고에 의해 북방으로부터 시달려온 중국에게 오늘날 소련의 붕괴는 그들의 내면적 발전에 유익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등과의 관계는 물론 여러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내면적 노력이 앞으로 또 한 세기의 개혁을 통해서 중국을 엄청난 변화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볼만한 세계사의 대 드라마가 될 것이다.

朔風

軍, 주권의 사각지대인가

인간은 누구나 추억을 지니고 있다. 때론 같은 시대적 상황속에서 삶을 구현하는 까닭에 공통의 추억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군대라는 추억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술만 마시면 군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군대 얘기가 많아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재대 후 1년동안 군대 곁을 꾸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곁은 악몽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전 끝난 3·24 총선을 지켜보면서 우리사회의 군에 대한 악몽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

라도 부재자투표에 관한 쓸쓸한 기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한때는 그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와 인간 모두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87년 대통령선거때라 생각된다. 그때는 삼중투도 군대에 있을 때였다.

87년 민주화의 불을 겪고 난후 군대에도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인지 사전여론조사에서 당시 민정당 후보가 사병들에게도 합패를 당하고 있을 때였다. 상부에서는 허겁지겁 인기투표를 방치한 군대 선거운동을 염담한다는 지침이 내려 오고 여당후보의 여의도 유세에는 수도권지역의 장교들에게도 사복착용후 참여가 지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교육시간만은

철저히 지켜지던 시기였다.

당시 우리 부대 중대장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은 모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소신껏 투표하라며 정신교육을 대신했다.

그 중대장이 이후 술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것은 뻔한 일이었다. 투표일 며칠전 그 중대장은 자신도 여당후보를 찍기로 최종결정하였다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그의 의사를 반박하여 주지시켰다. 그것만으로도 이질적인 계급사회 속에서 사병들은 왜소해져버렸다. VS 식 표현을 들자면 국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나 할까?

이러한 이야기는 불과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정리되지 않은 군대사전을 통해 끼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추억은 어느 한 장교의 양심선

언에 의해서 다시금 이른 과거의 하나로 새롭게 부상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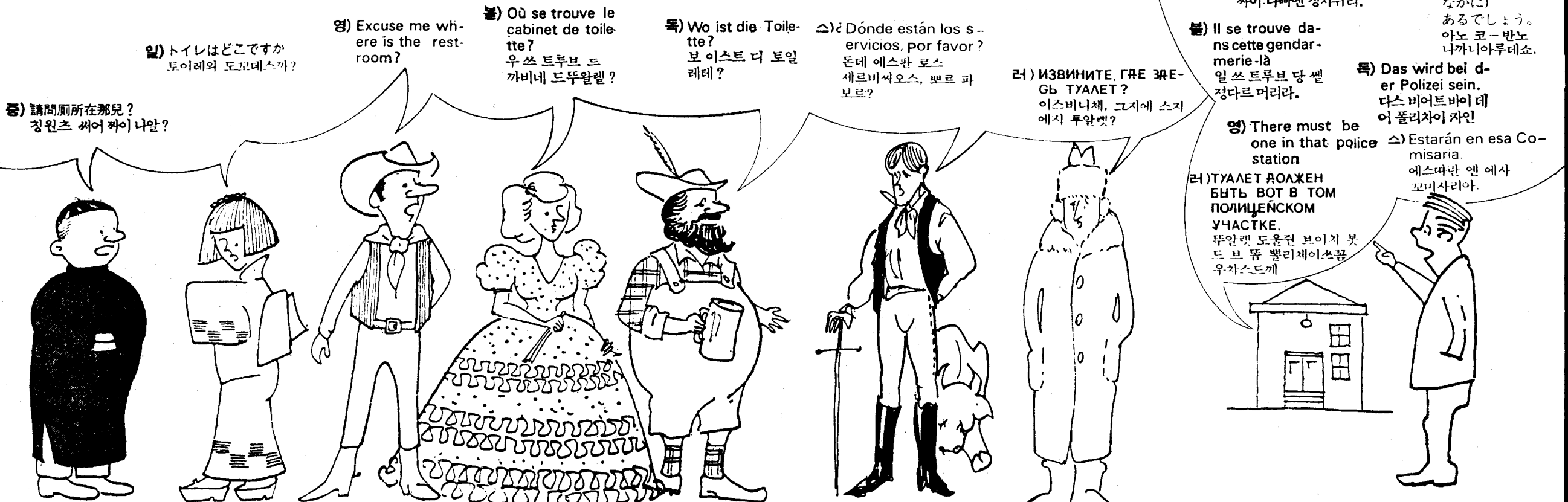
사실 이렇게 주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양심선언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군대사병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해명이었다. 마치 단독행임을 주장하는 인기부요원들처럼 말이다.

이젠 더이상 군사기밀 유출방지를 이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대가 부장선거의 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군 부재자 투표 또한 투표의 4대원칙이 지켜지고 선관위의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길만이 이 혼란한 현실과 우리의 이른 과거를 치유하는 길일 것이다.

(玟)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파출소안에 있을거예요”



파고다외국어학원

종로 : 274-4000
강남 : 515-4020